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

김 병 수 (전북대학교 가정학과)

정 혜 정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아내학대는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부터 아내학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내학대에 대한 연구는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요인분석, 그 실태 파악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내학대를 보는 일반인들의 통념과 인식은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고 아내학대의 개념에 대한 정립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학대의 경우 즉각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지만, 비신체적 상징적인 학대는 소홀히 다루어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남편과 아내들이 비신체적인 학대를 학대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비신체적인 학대로 인해 부부상호간의 정신적인 피해와 후유증이 신체적인 학대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고, 기능적인 가정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가지 유형의 아내학대, 즉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해 남편과 아내를 함께 대상으로하여 가해자로서의 남편과 피해자로서의 아내의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아내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전반적인 경향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인적변인으로 교육수준, 소득, 직업, 연령을 설정하였고, 가정 환경변인으로 결혼만족도, 성장기의 부모간의 폭력관찰경험,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그리고 부부간 학력차 및 가족형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전라남·북도에 거주하는 남편과 아내를 따로따로 표집하여 총 348명의 응답을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아내학대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 47문항의 5개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내학대의 인식은 각 문항을 학대로 인식하는지의 여부와 학대로 인식할 경우 어느정

도 심한 학대로 인식하는가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학대경험은 아내의 경우 각 문항의 학대를 남편으로부터 경험한 빈도를, 그리고 남편의 경우 아내에게 학대를 행사한 빈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학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모든 유형의 아내학대 문항을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를 '매우 심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성적 학대였다. 한편 유형별 학대경험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성적, 신체적 학대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변인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 아내가 남편보다 각 유형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학대의 경험에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아내학대의 인식은 정서적, 언어적, 성적학대의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편과 아내 모두 29세 이하 집단이 30세 이상의 집단보다 전영역에서 학대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아내학대에 대한 인식은 남편, 아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대의 경험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남편은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201만원 이상의 남편 집단이 그 이하의 저소득 집단의 남편보다 학대를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분석결과 남편의 아내학대에 대한 인식은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성적 학대영역에서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내는 성적 학대만이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내학대의 경험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전 영역에서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장기 폭력 관찰 경험은 남편과 아내 모두 학대의 인식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성장기 폭력관찰 경험은 아내학대의 경험에 있어서 남편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내의 경우는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학대의 경험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 형태에 따른 학대의 인식에서는 남편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학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의 남편이 아내학대의 유형을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한편 아내들의 학대인식과 경험은 가

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아내학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모든유형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는데, 이는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지적한 많은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아내학대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결혼생활에 대한 성차이를 인식시켜주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 환경변인에서 학대의 경험은 성장기 폭력경험과, 가족형태,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는 폭력의 희생자가 다시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아내학대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부부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학대의 예방과 대책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